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 “제한 없다”

한달 만에 ‘비핵화 시간표’ 접었다 하원의원들 앞에서 공개 발언 북한의 단계적 행동론 수용 ‘현실의 벽’에 가이드라인 철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가 끝나기 전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시킬 바란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6월14일)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7월17일)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 시간과 속도에 제한이 없다고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날 마러 정상회담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하원의원들을 만난 공개발언 자리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그 이후 후속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애초 주장해 온 속속속결식 일괄타결론을 사실상 접고 장기전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설왕설래가 반복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문제가 결국 한 달여 만에 특정 시한을 명시적으로 못 박지 않는 쪽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이는 북한이 줄곧 요구해 온 ‘행동 대 행

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동시 행동론을 미국이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지난 한 달여 간 톨러코스터를 탄 비핵화 시간표 논란은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4일 한국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기 바란다는 사실상 2020년 말을 그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비핵화 로드맵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협상 국면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측의 뜸 들이기로 후속협상이 지연되며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한발 물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칠면조 구이론’을 불쑥 꺼내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빗대어 “(비핵화를)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며 “이제 요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만

족한 것이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더 서두를수록 나쁘고, 더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이달 6~7일 방북을 앞둔 1일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1년 내 해체라는 시간표를 내밀며 이러한 방안이 조만간 북미 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시간표 논란은 재점화했다.
 이에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제시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시간표를 내놓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방북을 마친 지난 8일에는 “시간표와 관련해 우리(북미)는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북한과의 의견을 제대로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이 ‘빈손 방북’ 논란에 휩싸이며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협상에 회의론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갈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점을 내세워 속도 조절론을 적극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그것은 과정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

다”며 “나는 오래 걸리는 과정에도 익숙해 있다”고 말했다. 16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는 “나는 정말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과 잘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 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렇게 대북협상의 속도 조절을 시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는 자리인 이날 발언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 그저 프로세스(과정)를 밟아갈 뿐”이라고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과정의 시작”이라며 단계적 접근론에 살짝 발을 담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협상 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구체적 시간표를 못 박았다가 목표대로 속도를 내지도 못한 채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다.
 유해송환 작업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도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송환에 대해서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중, 항일기념관 박근혜 사진 철거
 한중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5년에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 설치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왼쪽 동그라미)이 갑자기 철거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신 이 자리에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 피습 기념일 사진(오른쪽 동그라미)이 걸렸다. /연합뉴스

폭우에 더위에...시름하는 아시아

베이징 20년 만에 폭우...관광객 발 동동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중국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중국기상대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지난 15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비가 내리면서 평균 강수량이 98.1mm를 기록했다.
 특히 베이징 미원(密雲) 현은 3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미원 저수지 수량이 22억 40만㎥를 기록해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22억㎥를 넘어섰다.
 중국기상대는 중국 북부지역에 내리던 비가 이날 오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당분간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반면, 중국 남부에는 제9호 태풍 ‘손뎀’이 이날 오전 하이난(海南)에 상륙해 광둥(廣東) 등 이미 홍수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다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지속하고 있다.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는 전날에만 기상 악화로 항공편 311개의 운항이 취소됐다. 또 연착이 잇따르면서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다.
 베이징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미원 현에서는 급속히 불어난 물에 관광객 30여 명이 세 시간 넘게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쓰촨(四川) 성베이완(北川) 지역에서는 폭우에 산지의 토사물이 주거지역으로 쓸려 내려와 한 마을 전체가 토사로 뒤덮였고, 서부와 남부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39도 찍은 일본, 활주로에 구멍까지

일본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영향으로 공항 활주로에 구멍이 파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거나 지연운항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도쿄(東京)의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지난 16일 20×30cm 크기에 깊이 10cm의 구멍이 발견됐다.
 공항 측은 4시간 동안 해당 활주로를 폐쇄하고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해 구멍을 메웠지만, 이 과정에서 하네다공항을 발착하는 항공기 10편이 결항하고 100여편이 지연운항됐다.
 일본 교통당국은 이런 구멍이 생긴 것이 활주로 표면의 아스팔트가 연일 계속되는 맹렬 더위의 영향을 지속해서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긴급 보수작업 후 상세조사를 실시해 활주로에 균열이 추가로 발견되자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60×5m 범위에 대해 다시 보수작업을 벌였다.
 일본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열도 전역에 걸쳐 35도를 넘는 맹렬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17일에도 기후(岐阜)현 이비가와초(揖斐川町)의 낮 최고 기온이 38.9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오바마 “내 춤 어때요?”
 버락 오바마(왼쪽 두번째)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워더러 크리켓경기장에서 열린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델라의 부인(맨왼쪽)과 가수, 시릴 라마포사(맨오른쪽) 남아공 대통령과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